

# “바가지 횡포·불친절 여전했다”

전남지역 피서지를 찾은 외지 관광객들이 바가지요금과 불친절, 업소의 비위생적인 시설 등에 대한 불만을 잇따라 제기하고 있다.

지난달 26일 경기도에서 가족과 함께 목포 외달도 해수욕장을 찾은 김모씨는 황당한 경험을 했다. 철부선에 승용차 승선요금 3만6천원을 지불하고 섬에 도착했으나 진입도로가 막혀 있어 차량을 사용할 수 없었던 것. 김씨는 선사측에 항의했으나 “차량운행이 안된다는 사실은 목포시에서 알려줄 사항”이라는 답변만 들었다.

반면 목포시는 “차량진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지 등을 통해 홍보했으나 선사 측에서 충분히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다”고 선박회사측에 책임을 떠넘겼다.

목포 외달도 해수욕장의 불결한 환경에 대한 관광객들의 비난도 쇄

## 피서철 전남 찾은 관광객 불만 고조 식당·해수욕장·화장실시설도 불결

도하고 있다. 외달도 내에 있는 쓰레기 통 대부분이 음식물 등 각종 쓰레기로 가득 차 악취가 풍겼다.

외달도를 찾은 피서객 광모(35·경기도)씨는 “해수욕장의 관리가 제대로 안돼 오히려 이용객들에게 불쾌감만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런가 하면 해양문화축제 기간인 지난 2일 하당 모 음식점에서는 죽은 파리가 간장통과 초장그릇에서 나오다가 하당 일부 영업용 택시들의 바가지요금으로 목포 이미지

를 훼손했다. 또 국립공원 지역인 흥도 일부 음식점에서는 카드는 물론 현금영수

증 발급도 거부해 관광객들의 불만을 샀다.

여수지역도 관광지과 음식점이 불결하고 바가지 요금 횡포를 일삼고 있다는 불만이 시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쇄도하고 있다.

만성리와 방죽포 등 여수지역 대부 해수욕장의 경우 음식점이 너무 비싸고 수질도 깨끗하지 못한다며 여수역 택시 정류장 일대에서 공공연히 호객행위가 성행하고 있어 외지 관광객들에게 나쁜 인상을 심어 주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또 옹동도 회타운 공중화장실이 너무 멀리 있는데다 모기가 득실거

리는 등 불결해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달 초 방죽포해수욕장을 찾은 이모씨는 “해수욕장에 죽은 물고기와 고무장갑, 생활용품, 비닐봉투가 동동 떠다니고, 심지어 인근 치킨집에서 버린 닭털까지 동동 떠다니는 거야”며 “올 여름 여수에 처음 왔는데 이번이 마지막 여행이 될 것 같다”며 여수에 대한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다.

여수를 처음 방문했다는 김모씨도 “엑스포 개최 도시가 맞는지 의심이 들 정도로 관광객이 없었다”면서 “만성리해수욕장과 무술목 유원지에서 주차료는 따로 받으면서 연히 호객행위가 성행하고 있어 외지 관광객들에게 나쁜 인상을 심어 주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목포=이상선기자 sslee@ /여수=박양규기자 ykpark@

# 불법경작지 영산강 오염 주범

## 전남발전연구원 논문 “비료·잔류 농약 등 하천 유입”

영산강 고수부지 내 불법경작지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이 영산강 오염의 주범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남발전연구원 김희근 위촉연구위원과 김종일 책임연구위원은 최근 부경기간행물 ‘리전인포’에 발표한 ‘영산강 고수부지의 비점오염원 관리방안’ 논문을 통해 “고수부지는 일반적으로 논, 밭에 비해 박토이기 때문에 비료나 농약 사용량이 많아 비가 내릴 경우 오염물질이 쉽게 하천으로 흘러들어간다”고 주장했다.

논문자료에 따르면 영산강 고수부지 내 경작지는 9.29km로 전체 면적의 14.0%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점용허가 없이 불법으로 경작되는 농경지 면적이 전체 경작면적의 70.1%인 6.51km로 일선 지자체가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구나 고수부지 내 경작지 오염부

하량이 일반 논에 비해 1.2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 영산강의 주요 오염원이 되고 있다.

일반 논은 경우 총질소(T-N)와 총인(T-P)이 0.36195, 0.04781인데 비해 고수부지내 논은 각각 0.45419, 0.05989로 조사됐으며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도 고수부지내 논이 2.56066으로 일반논의 2.50116에 비해 높았다.

또 오염물질이 논에서 수계로 흘러드는 비율인 유출률도 일반 논이 총질소 13.8%, 총인 15.9%에 그친 반면 고수부지 내 논은 하천과 거리가 가까워 100%에 육박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유출률을 고려해 고수부지 경작지의 연간 오염부하량을 산정한 결과 총질소가 19만2198.6kg, 총인이 1만5475.4kg로 하천 부영양화를 야기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김종일 책임연구위원은 “영산강 고수부지 수생태계 보전과 지속가능한 활용을 위해 ‘영산강 고수부지 재정비 마스터플랜’ 수립이 필요하다”며 “경작농민에 대한 교육과 홍보, 농약 및 비료사용 기준 강화 등도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비점오염원(非點汚染源) = 불특정한 배출경로를 통해 비점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장소 또는 지역을 가리킨다. 비점오염물질을 인위적으로 조절이 어려운 기상이나 지질, 즉 주로 비가 올 때 지표면 유출수와 함께 유출되는 것으로 농지에 살포된 비료나 농약, 축사 유출물, 도시의 먼지·쓰레기 등의 오염물질을 일컫는 말이다.

## 광산구 행복학교 수강생 50명 모집

광산구가 결혼 이주여성의 한국생활 정착을 돕기 위해 제 2기 다문화가족 행복학교(이하 행복학교)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다.

행복학교는 관내에서 거주하는 결혼 이주여성 5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오는 26일까지 동 주민센터나 광산구청 사회복지팀에 신청하면 된다.

행복학교는 한국어 초·중급 과정과 생활예절, 요가와 관공서와 은행, 대중교통 이용하기 및 장보기 등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쓰이는 체험과정으로 꾸며진다.

특히 지난 3월 1기 과정에서 반응이 좋았던 한식요리 과정이 강화됐으며 추석때는 수강생들이 직접 만든 송편과 김치를 들고 관내 독거노인들을 방문해 정을 나눌 계획이다.

또 수업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엄마와 함께 오는 아이들을 따로 돌봐주는 탁아 서비스도 제공한다.

전액 무료로 진행되는 행복학교는 오는 27일 개강식을 갖고 두 달간 운영된다. 문의 (062-940-8558) /광산=기원태기자 wtkee@

## 광복절, 함평 가는 길 무궁화 꽃 만개



제 63주년 광복절을 맞아 함평군 주요 도로변에 분홍과 하얀색 무궁화 꽃이 만개했다. 함평군은 지난 99년부터 국도 23호선 등 3개 노선 25km와 소공원에 무궁화 등 각종 가로수 5만여 그루를 심었다. /함평=박영진기자 pyj4079@

## 민원 처리 기한 단축

### 영광군 훈령 개정...250건 시행

영광군이 다음달부터 처리 기한이 정해진 민원 업무 324건 가운데 약 77%인 250건을 단축 시행하기로 지자체 훈령을 개정했다.

단축 대상 민원은 도시과 30건, 건설과 28건, 지역경제과 26건, 환경복지과 26건, 친환경농정과 21건 등으로 행정안전부가 정한 법정 처리 기간에 비해 평균 6.5일이 단축될 예정이다.

특히 90일 걸리던 지방세 이의신청 처리 기간이 45일로, 산업단지 지정 요청도 80일에서 40일로 줄어든다.

또 60일이던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발부기간도 30일로 단축되며 ▲건설업등록 ▲수도사업 인가신청 ▲상수원보호구역 행위허가 신청 ▲소하천공사 시행허가 등의 처리 기간 역시 절반으로 줄어든다. /영광=조익성기자 ischo@

## 고흥 출신 김유평 사장 18년간 태극기 무료 보급

### 군청에 300개 기증

고흥 출신 한 기업인이 18년째 태극기를 무료로 보급하고 있다. 고흥군 도양읍이 고향으로 광양에서 주식회사 한려항만을 운영하고 있는 김유평 사장(사진 왼쪽)은 지난 12일 고흥군청을 방문해 박병중 군수에게 태극기 300개를 기증했다.

김 사장은 또 여수해양경찰서에 700개, 광양중앙교회 200개, 포스코 주택단지 500개 등 지난 90년부터 현재까지 18년동안 3만7천여개(시가 2억원 상당)의 태극기를 무



상으로 기증했다.

김 사장은 평소 회사 내 임직원들과 자발적으로 ‘한려 사랑회’를 조직하고 태극기 보급과 어려운 이웃돕기에 앞장서 왔다. /고흥=주지중기자 gjju@

김 사장은 “나라를 빼앗겼던 아픈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나라 사랑의 일환으로 태극기를 보급하게 됐다”고 말했다. /고흥=주지중기자 gjju@

## 2008 국제아트페스티벌 30일부터 여수시 일원서

‘2008 국제아트페스티벌’이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여수시 일원에서 열린다.

이번 국제아트페스티벌에서는 미국 출신의 세계적인 큐레이터 라울 자루디오가 전시 기획을 맡아 국내외 작가 275명의 회화, 조각, 사진, 영상, 소리 작품 516점이 전시된다.

‘한회의 정원’이란 주제의 메인 전시는 전남문화회관과 전남대 국동 캠퍼스에서 각각 열린다.

또 ‘한국미술의 위상전’ ‘한국의 리얼리즘전’ ‘여수엑스포 조각전’ ‘새로운 제안 여수전’ 등을 주제로 하는 특별전시는 전남문화회관과 옹동도, 화양면에 위치한 갤러리 ‘연’, 자산공원 내 ‘해오름 갤러리’ 등에서 각각 열린다.

이밖에 시외버스터미널~서교동 로터리, 여수동로터리, 여수문화방송 앞 로터리, 수정동 대한봉운~옹동도 일대 거리에서는 지역작가 80여 명의 배너 작품이 전시된다.

한편 지역작가들의 작업공간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지역작가 오픈 스튜디오전’ (9월6·7일)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민들은 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여수=박양규기자 ykpark@

## 신안군 원두막 지원사업

신안군이 친환경 우수농산물 생산 농가를 대상으로 원두막을 제공해 농산물 직거래 장과 훈훈한 정을 나누는 휴식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원두막 지원사업은 지난 6월 압해대교 개통과 발 맞춰 시작됐으며 올해 10동(8천만원)이 제공될 예정이다.

군은 접근성이 양호하고 친환경 과수 농가가 많은 압해면에 9동, 슬로시티로 지정된 증도면에 1동을 설치, 관광객과 농민들의 반응이 좋으면 내년부터 전 읍·면으로 확대 지원할 방침이다. /신안=조원희기자 wncho@

## 광양 시립수영장 내년 착공

광양시에 국제 규모의 수영장이 들어선다.

광양시는 광양실내체육관 인근 서천면 부지 1만9천667㎡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시립수영장을 내년 5월 착공해 2010년 10월 완공할 계획이다.

시립수영장은 길이 50m에 10레인 갖출 예정이어서 전국대회 개최가 가능한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전남도내에서 전국대회 개최가 가능한 수영장은 목포시립수영장 한곳 뿐이다. /광양=김춘호기자 chkim@

## 완도·여수에 해산물 가공공장

### 140억 들여... 전북·간고등어 국내 시장 개척

완도와 여수에 해산물 가공공장이 들어서 지역 수산물의 판로 확보와 어민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는 14일 박준영 도지사와 정현찬 ㈜청산바다 대표, 고찬운 ㈜미관산업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140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청산바다와 ㈜미관산업은 각각 완도와 여수에 70억원씩을 투입해 위해중점관리기준(HACCP)을 충족한 전북 가공공장

과 간고등어 가공공장을 세운다. 특히 탄탄한 유통망과 가공기술을 바탕으로 도내 청정지역에서 생산되는 전북과 간고등어를 원료로 30여가지의 각종 부가가치 수산가공식품을 생산해 국내외 시장 개척에 나선다.

고찬운 대표는 “앞으로 분사를 전남으로 이전, R&D 투자를 통해 디자인과 신제품을 개발해 국제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힌 신규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 “작업복 출퇴근 안돼요”

### 한국 바스프, 오염물질 외부 유출 방지 대책

한국 바스프가 공장 내 오염물질의 외부 배출을 막기 위해 직원들이 작업복을 입고 출퇴근하는 등 오염물질이 가정이나 음식점 등으로 옮겨져 제 2차 오염을 유발할 개연성이 있기 때문이다.

현재 바스프를 제외한 여수산단 주요 대기업 직원들은 작업복을 입고 출퇴근하고 있다. /여수=박양규기자 ykpark@

치는 직원들이 작업복을 입고 출퇴근할 경우 작업복에 묻은 공장 내 오염물질이 가정이나 음식점 등으로 옮겨져 제 2차 오염을 유발할 개연성이 있기 때문이다.

현재 바스프를 제외한 여수산단 주요 대기업 직원들은 작업복을 입고 출퇴근하고 있다. /여수=박양규기자 ykpark@



제 13회 강진청자문화제의 주요 프로그램 중 하나인 화목기가 분별구이가 한창인 가운데 청자도공들이 장작을 넣고 있다. 화목기에서 만들어진 청자의 즉석 경매는 16일 오후 강진청자박물관에서 열릴 예정이다. <강진군 제공>

## 강진청자문화제 ‘대박’

### 5일만에 청자 10억원어치 판매

올해로 13회째를 맞이한 강진청자문화제가 개막 5일 만에 10억 원이 넘는 청자 판매액을 기록하는 등 열일 대박 수익을 내고 있다.

강진군은 14일 “강진청자문화제 개막일인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5일 동안 고려청자와 청자기념품, 청자물레체편, 박물관 입장권 판매 등으로 10억 1천여만 원의 판매액을 올렸다”고 밝혔다. /광진=박진희기자 lucky@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2억 6천만 원보다 293%가 증가한 금액이다. 군은 특히 10억 1천여만 원의 판매액은 신용카드 금액만을 추산한 것인 만큼 현금 구매액 등을 포함할 경우 12억 원 이상의 매출액을 기록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지난 9일 개막한 강진청자문화제는 개막식 당일에만 역대 최대인파인 13만 명이 방문했으며, 5일 동안 30여만 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광진=박진희기자 lucky@